

KIA 캡틴 김주찬

타격 슬럼프도 팬들의 걱정도

날려 버렸다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더라”라던 김주찬이 반전의 여름을 보내고 있다. KIA 타이거즈 ‘캡틴’ 김주찬은 ‘우승’을 이야기하면서 2017시즌을 시작했지만 ‘미안한 마음’으로 고난의 봄을 보냈다. 전반기 김주찬은 잘 나가는 KIA 타선의 블랙홀이었다. 왼 손목 통증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되기 전까지 39경기에 나와 141타수 24안타, 0.170의 타율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홈런은 2개, 타점도 13점에 불과했다. 상승세 기미를 보이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원점으로 돌아간 타격에 김주찬은 물론 지켜보는 이들의 애가 났다. 계속된 부진에도 김기태 감독은 3번 자리를 보장하며 ‘캡틴’의 부활에 공을 들였지만, 이런저런 노력에도 김주찬은 끝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다. 결국 그는 왼 손목 통증으로 5월 20일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손목 부상도 부진 탓이었다. 부진 탈출을 위해 훈련을 무리하게 소화하다가 손목 통증을 심해진 것이다. 그리고 6월 8일 김주찬이 1군으로 복귀하면서 ‘진짜 시즌’이 시작됐다. 5월 19일 부상으로 내려가기 전까지 타율 0.170(141타수 24안타) 2홈런 13타점 17득점에 그쳤던 김주찬은 6월 8일 복귀 후 지난 29일까지 타율 0.417(144타수 60안타) 6홈런 34타점 35득점을 기록했다. 김주찬의 진기가 빛난 건 팀 타선의 동

■ 김주찬 부상 전·후 성적

| | |
|----------------|--------------------------------------|
| 부상 전 (~5월 19일) | 141타수 24안타 타율 0.170 2홈런 13타점 17득점 |
| 부상 후 (6월 8일 ~) | 144타수 60안타 타율 0.417 6홈런 34타점 35득점 |

손목 부상으로 0.170 부상 복귀 후 0.417 후반기 홈런 3·2루타 7개 결정적일때마다 한방 “공 많이 보며 가볍게 맞침”

반 하락세 속에 맞은 후반기다. 후반기 11경기에서 김주찬은 0.438의 타율(48타수 21안타)로 11타점과 12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21개의 안타 중 홈런이 3개, 2루타도 7개에 이를 정도로 장타가 살아났다. SK 와이번스와 안방에서 연장 혈투를 벌였던 지난 25·26일에는 결정적인 안타로 이를 연속 끝내기 쇼를 장식했다. 10·10으로 맞선 25일 연장 10회말, 선두 타자 김주찬이 우측으로 공을 날리며 무사 2루를 만들었다. 그리고 버나디나의 기습 본트 때 3루로 향한 그는 SK 투수 박희수의 송구 실책으로 홈까지 들어오면서 끝내기 승을 완성했다. 7·7에서 맞은 26일 연장 11회말 타석에서도 김주찬이 불씨를 살렸다. 앞서 솔로포 포함 멀티히트를 기록했던 김주찬은 11회 6번째 타석에 섰고, 이번에는 왼쪽으로 공을 보내 1사 2루를 만들었다. 이어 폭투로 김주찬이 3루를 밟으면서 상대가 연속 고의

사구로 만루 작전에 나섰다. 그러나 안치홍의 땅볼 때 바람처럼 김주찬이 홈에 들어오면서 이렇다 할 홈 승부도 없이 KIA의 두 경기 연속 끝내기 승이 기록됐다. 27일에는 스리런 포함 3안타로 팀의 3연승을 주도한 김주찬은 주말 두산 원정에서도 때론 방망이 실력을 보여줬다. 28일 홈런성 타구가 외야 관중의 방해 속에 어렵게 2루타로 둔갑했지만 29일 귀한 솔로포를 날리며 2-1 승리의 주역이 됐다. 지난 시즌 보여줬던 김주찬의 화려한 스윙이 살아나면서 연일 맹타가 이어지고 있다. ‘눈아구’가 반전의 실마리가 됐다. 김주찬은 “어려울 때 팀원들이 많이 도와줘서 힘을 얻었다. 공을 많이 보려고 했다”며 “공이 안 맞다 보니까 급하게 스윙이 이루어졌다. 결과가 안 좋아서 악순환이 계속됐지만 지금은 공을 많이 보면서 중심에 맞히려고 노력하고 있다. 가볍게 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음보다 방망이가 앞섰던 김주찬은 침착하게 공을 보면서 공을 맞히는 데 주력했고, 타이밍을 잡으면서 특유의 벼락같은 스윙의 위력을 살렸다. 또 뒤에서 든든하게 역할을 해준 동료들 덕에 안타 욕심을 줄이고 출루에 신경 쓰면서 감을 잡을 수 있었다. ‘캡틴’의 반전과 함께 KIA의 ‘V11’ 꿈이 무르익어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주찬



“엄마 보고 계시죠?” 최다빈 181.79점

피겨 코리아첼린지 싱글 우승
최근 어머니를 여읜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간판 최다빈(17·수리고)이 ‘평창 올림픽 무대’에 한 발짝 다가섰다. 최다빈은 30일 목동실내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표선수 1차 선발전을 겸한 KB금융 피겨스케이팅 코리아첼린지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118.75점을 얻었다. 전날 쇼트프로그램에서 63.04점을 따낸

최다빈은 프리스케이팅 점수를 합쳐 총점 181.79점을 기록, 김하늘(평촌중·169.15점)을 큰 점수 차로 따돌리고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3위는 총점 162.44점을 따낸 안소현(신목고)이 차지했다. 올해 2월 삿포로 동계아시아게임에서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금메달을 따내고, 지난 4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0위를 차지하며 올림픽 티켓 2장을 확보한 최다빈은 지난 6월 입부병 중이던 어머니를 잃는 시련을 겪어 제대로 훈련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김현수 필라델피아 필리스 이적 외야수 벤치 플레이어로 뛴 듯

뎀 클렌탁(37) 필라델피아 필리스 단장이 김현수(29)의 역할을 ‘백업 외야수’로 정의했다. 클렌탁 단장은 30일(이하 한국시간) CNS 필라델피아와 인터뷰에서 “김현수는 벤치 플레이어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필라델피아는 지난 29일 우완 제러미 헬릭스를 볼티모어 오리올스로 보내고 좌완 유망주 개러 클레빈저, 국제 아마추어 선수 계약권, 그리고 김현수를 받았다. 볼티모어에서 좀처럼 자리 잡지 못했던 김현수에게 이번 트레이드는 분위기를 바꿀 계기다.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클렌탁 단장의 말처럼 김현수는 필라델피아에서 두 백업 외야수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필라델피아 3명의 젊은 외야수가 주전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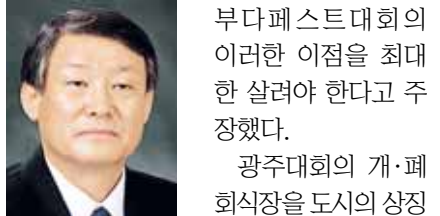
2017 세계수영대회 참관 김응식 광주시체육회 수석부회장

“고풍스런 국회의사당 건물 배경 27m하이다이빙 묘기 장관”

“고풍스러운 국회의사당 앞에 유유히 흐르는 다뉴브강 위로 뻗은 27m높이의 하이다이빙 구조물. 그 위에서 펼쳐지는 선수들의 묘기는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30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2017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참관한 김응식 광주시체육회수석부회장은 최근 모처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헝가리 현지에서 경기장 위치나 진행방식 등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 부회장을 비롯해 대한수영연맹, 광주수영연맹, 2019 수영대회조직위 10여명으로 구성된 참관단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부다페스트 현지에서 진행 상황과 선수촌 운영 방식 등 대회 전반을 둘러봤다. 참관단은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약 700여일 앞두고 국제대회운영의

감각을 익히고 대회 운영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경기장과 싱크로나이즈드, 수구 등의 종목별 경기장을 방문해 선수들의 안전과 수송 방식 등을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김 부회장은 대회 경기장 대부분이 부다페스트의 유명 관광지 등에 있다는 점을 높이 샀다. 개·폐막식이 열린 파프 라슬로 스포츠 아레나(PAPP LASZLO BUDAPEST SPORTARENA)는 올림픽에서 3연승을 한 헝가리 복서의 이름을 딴 경기장을 활용했다. 다뉴브 강의 하이다이빙 경기장을 비롯해 수영의 마라톤이라 할 수 있는 ‘오픈워터’종목은 중앙 유럽 최대의 민물 호수인 발라톤(Balaton)에서 열렸다.

‘두나 아레나(Duna Arena)’에서는 다이빙과 수영 전 종목이 펼쳐졌고 다뉴브강 사이에 있는 마가렛섬의 공공수영장에서는 수구가 펼쳐졌다. 또 싱크로나이즈드가 펼쳐지는 도심 공원인 바르슬리게크(Varosliget Lake) 주변에는 895년 헝가리인에 의한 판노니아 평원 정복 1000주년을 기념해 1896년에 지어진 바이더후너드 성(Vajdahunyad Castle)이 있는 등 ‘도심의 경관과 경기장을 잘 배치해 경기관람객과 관광객 모두를 만족케 했다’고 김부회장은 전했다. 숙박시설 또한 1000년 수도 부다페스트의 이점을 잘 활용해 따로 선수촌을 두지 않고 호텔 등의 주변 숙박시설에 각각의 선수단을 수용했다는 점도 눈에 띄었다. 김 부회장은 오는 2019년 광주대회에도



부다페스트대회의 이러한 이점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대회의 개·폐회식장을 도시의 상징성이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또는 금남로 일원이나 중앙공원 등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픈워터 종목도 기존 장성호 일원이 아닌 수온이 낮고 바닷물이 드나드는 여수 앞 바다로 변경해 줄 것을 희망했다. 김부회장은 “여수에서의 오픈워터 경기 운영은 대회가 열리는 7월 고온의 날씨로 인해 장성호가 가뭄이나 녹조 발생으로 대회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 복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이다이빙이나 오픈워터 종목은 우리에게 생소한 경기”라며 “대회 전까지 여러 국제대회를 참관하는 등 벤치마킹해 차질 없는 경기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김세영, 비바람 뚫고 우승할까

스코티시 오픈 시즌 2승 도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애버딘 에셋 매니지먼트 레이디스 스코티시 오픈(총상금 150만 달러)에서 시즌 2승에 도전하는 김세영(24)이 ‘백전노장’들 오픈워터 종목도 기존 장성호 일원이 아닌 수온이 낮고 바닷물이 드나드는 여수 앞 바다로 변경해 줄 것을 희망했다. 김부회장은 “여수에서의 오픈워터 경기 운영은 대회가 열리는 7월 고온의 날씨로 인해 장성호가 가뭄이나 녹조 발생으로 대회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 복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이다이빙이나 오픈워터 종목은 우리에게 생소한 경기”라며 “대회 전까지 여러 국제대회를 참관하는 등 벤치마킹해 차질 없는 경기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들이다. 3라운드 전만 한 타를 줄인 김세영은 후반에는 파로 계속 막다가 17~18번 홀 연속 버디에 힘입어 공동선두에 안착했다. 김세영은 “16번 홀부터 비가 무척 많이 내리기 시작해 우산을 잡기도 힘들 정도였다”면서 “샷을 하기도 무척 어려웠지만, 몇 초 정도씩 집중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18번 홀(파5)에서는 이글 기회를 맞았으나 버디로 마친 그는 “그땐 바람이 공을 밀어내 놓친 것 같다”고 아쉬워하면서도 “내일이 남아 있다”며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어 김세영은 “불행히도 날씨에 정말 나빴지만, 이런 날씨에 3인더파를 기록해 기쁘다”면서 “이런 날씨에서 경기해 본 적이 없어서 좋은 경험이 됐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